

천리교의 위탁 양육 사상의 전개

아오키 시게루 (도쿄공업대학)

1. 처음에

1.1 목적

천리교 교단에 「천리교 양부모 연맹」을 마련하고, 회원 612 가구에 735 명의 위탁 아동 양육 (2020 년도 조사)을 전국 규모로 실시하고 있다. 이것은 일본의 위탁 양육 제도 (후생 노동성 어린이 가정 국 가정 복지과, 2019) 중 약 10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눈에 띄는 비율이다. 「천리교 양부모 연맹」의 사무국에 따르면 천리교 신자와 천리교 회장이 단기간동안 가정 내 사정이 있는 어린이를 위탁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위탁 양육에 준한 활동을 하는 예도 많아 사실상의 숫자는 더욱 많다고 한다.

본 논문은 왜 한 종교 단체가 위탁 양육이라는 공적인 활동에 그토록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 이유를 천리교의 종교적인 신조를 통해 밝혀 나간다. 또한 일본의 복지 제도의 변화와 천리교의 위탁 양육의 변천을 시대별로 대비시켜 천리교의 위탁 양육 사상의 전개를 고찰하려는 시도이다.

1.2 사회적 배경

일본은 지금 가족 개념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저출산, 이혼과 비혼이 증가해 과거의 대가족 속에서 아이가 성장하는 모습은 사라지고 소규모 가구·독거노인 가구 등의 형태가 일반화되고 있다. 그 결과 자녀 양육을 부모 또는 조부모와 함께 대가족이 같이 한다는 기존의 사고방식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육아 포기나 아동 학대 등 어린 아이가 사망하는 참혹한 사건도 발생하고 있다. 이것을 증명하듯, 아동 상담소에의 상담 건수는 증가하여 2018 년에는 약 44 만 건이고 그중 학대 상담은 약 10 만 건으로 지난 10 년간 3 배나 증가했다. 아동 상담소는 신속하게 어린이를 보호하고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하지만 그 대응에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위탁 아동 양육을 마주하며 실천하는 모습 속에서 위탁 아동과 양부모가 혈연을 넘어 가족을 구축하는 조건과 거기에 종교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찾고자 한다.

2. 역사적 변천에서 본 천리교의 위탁 양육

2.1 천리교란?

나라현 텐리시에있는 천리교는 에도 막부 말기인 1838 년 교조(教祖)인 나카야마 미키(中山みき)가 신의 계시를 받아 세운 신흥 종교이다. 천리교의 중심적인 사상에는 「도움」이라는 구호 사상이 있다. "남을 돕는 것이 나를 돕는 것이다"라는 가르침이 신자에게 뿌리내려 있다. 또한 「히노키신」이라고 하는, 신에 대한 보은 감사를 신앙 실천의 활동으로 행하는 것을 중요시한다. 위탁 양육의 배경에는 이러한 개념이 정착되어 있다.

2.2 천리교의 위탁 양육의 역사, 4 개의 시점

천리교 신자의 수양아들, 딸에 대한 양육관은 현대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 4 개의 전환의 시점에서 고찰하고, 천리교 양부모의 양육 활동과 종교적 의미 부여의 변천을 파악한다.

2.2.1 지도자 나카야마 미키와 위탁 양육

첫 번째는 천리교 교조인 나카야마 미키의 일화를 통해 어린이 양육에 대한 생각을 이해할 수 있다. “어느 늦가을에 한 여자 거지가 덕지덕지 때가 묻은 아이를 등에 업고 문 앞에 서서 자비를 구했다. 교조는 곧바로 따뜻한 죽을 만들어 주고 옷까지 주면서 ‘부모에게는 후의를 베풀었지만 아이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 무척 배가 고프겠구나’라고 말하며 그 아이를 안아 자신의 젖을 물렸다.”(『고본(稿本) 천리교교조전(天理教教祖傳)』, p20) 이 장면에서 아이를 향한 특별한 시선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이웃의 젖먹이를 돌보다가 아이가 질병에 걸렸는데, 자신의 몸, 자신의 아이의 생명과 바꿔 달라고 신에게 회복 기도를 했다는 일화도 있다.(『고본(稿本) 천리교교조전(天理教教祖傳)』, p20)

“돈이 얼마 있든지, 또, 쌀 창고에 쌀이 얼마나 쌓여 있든지, 즉시 아이에게 주어야 한다. 사람의 아이를 맡아 키워 주는 것처럼 큰 도움은 없다.”(『고본 천리교교조전 일화편』, p146)

일화를 통해 천리교의 어린이 양육관을 이해할 수 있고 교조 나카야마 미키가 제시한 종교관과 위탁 양육의 원점을 알 수 있다.

2.2.2 「천리교 양덕원(養德園)」 개설

다음은 1910 년에 설립된 아동 복지법에 의한 보호 시설 「천리교 양덕원」에 주목한다. 지금은 「천리 양덕원」로 명칭을 바꾸고 약 육십 여 명의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다.

「천리교 양덕원」개설까지는 다음과 같은 경위가 있었다. 천리교는 1888 년에 교회 설립 허가를 받았지만, 그것은 신도(神道) 직할 교회이기 때문에 독립적인 종교 교단으로서의 승인이 아니었다. 종교 일파로서의 독립을 염원한 천리교는 국가에 5번을 청원한 후, 1908 년에 겨우 천리교로 일파 독립을 달성했다.(「개정 천리교 사전」, p46)

일파 독립까지 국가와의 협상은 난항을 거듭했다. 국가는 인정 조건으로 “천리교도 조금은 국가 사업을 해보면 어떠한가. 형기를 마치고 출옥한 사람 보호 감화원을 설립하는 것도 그 한 방법이다”라고 사회 공헌 활동을 요구했다.(「개정 천리교 사전」, p47) 이를 계기로 당초에는 감화원 설립을 목표로 했지만, 나라 현 내에는 이미 설립된 감화원이 있었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 시설로 변경해 「천리교 양덕원」이 개설되었다.(구라모치 후미토키, 2019a, 2019b)

즉 「천리교 양덕원」개설은 반드시 사회적 공헌만이 주된 목적인 것은 아니었고 일파 독립을 위한 국가와의 거래 요소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보호시설 개설은 천리교 교리를 바탕으로 한 독자적인 사회 복지 사업의 본격적인 전개를 의미했다. 당시의 천리교 신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시대였고 교조 (오야사마) 40 주년을 맞이해 교세를 두 배로 확대하려는 운동 「배가 운동」도 시작하는 활기 넘치는 시대였다. 그러나 일파 독립

후에도 국가와의 관계는 어려운 것이었다. 천리교 지도자 나카야마 미키의 「도움」과 「히노키신」의 가르침은 점차 국가에 공헌 및 협력이라는 의미를 강화해 갔다.

2.2.3 천리교 전후 복지 활동과 양부모 협회 설립

세 번째는, 전후의 천리교와 천리교 양부모 연맹의 활동에 초점을 맞춘다. 국가의 압력에 의해 금지된 교리와 의례를 교조 나카야마 미키의 가르침의 원점으로 되돌아가서 행하는 것이 전후에는 허용 받게 되었다.

교단은 신앙의 원점으로 돌아가려는 「복원」 사업을 실시하며, 변화의 시기를 맞이했다. 또한 전후 민주주의의 움직임도 반영하여 다양한 복지 사업을 전개, 새로운 종교 실천 활동으로서 전국적인 규모로 확산되었다.(카네코 아키라, 2004, p19-p23)

1982년에는 「천리교 양부모 협회(현재 천리교 양부모 연맹)」가 종교 단체로서 처음 설립되었다. 이를 계기로 연맹은 양부모의 연수 및 교류와 그 역할을 확대했다. 하지만 「도움」신앙의 실천으로 사회적 약자를 이미 많이 받아들인 교회 안에는 천리교 양부모 협회라는 교단 내 조직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도 있었다고 한다.(야기 사부로, 2010: p52)

전후 위탁 양육 활동은 새로운 교단의 사회 공헌 활동과 종교 실천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시대에 천리교의 사회 공헌 활동의 중요한 하나로 자리 매김하여 현재의 초석이 구축되었다고 볼 수 있다.

2.2.4 위탁 양육의 새로운 정책

2017년 후생 노동성은 위탁 양육 제도의 근본적인 정책 변화를 제시했다. 「새로운 사회적 양육 비전」은, 위탁 양육은 기존의 보호시설에서 양부모 밑에서 양육한다는 대폭적인 정책 전환을 내세웠다.

이것은 아이들이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성장하며 가족·부모 역할 모델을 자연스럽게 학습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기본적인 생각이다. 또한 양육 가정에 경비를 지급하여 지금까지의 무료 봉사적 성격이 강한 양육 방식을 개선해 나갔다.

위탁 양육 제도가 마련되면서 다른 과제도 떠올랐다. 아동 상담소는 위탁 양육 시 아이들에게 종교를 강요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요구한다. 그러나 천리교 관계의 수양아들, 수양딸은 교회장이 양부모인 경우가 많고, 매일 천리교의 가르침 아래에서 생활한다. 또한 교회장의 집은 신앙 활동과 분리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천리교 양부모가 증가해, 정교 분리의 취지에서 종교와 공적인 위탁 양육 제도의 관계에 관심이 집중되는 결과가 되었다. (구와하타 요이치로, 2019,2020a,b)

이에 대해 와타나베 가즈쿠니((2011: p25)는 종교가 행하는 양육 활동에 대해, 교회 회장 부부의 개인적인 종교 활동을 초월한 공적 종교 단체의 사회 공헌 활동이라고 말한다. 즉, 위탁 양육은 교회와 종교의 공공성, 혹은 종교가 사회 속에서 교회가 해야 할 책임의 하나라는 견해이다.

어쨌든, 종교 활동(천리교 신앙)과 공적인 사회 활동(위탁 양육) 사이에 어떤 관계를 구축하면서 국가가 제시하는 위탁 양육 제도를 실천해 갈지 아직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어, 향후의 과제로 남는 중요한 부분이다.

3. 결론 및 향후 과제

천리교의 위탁 양육 활동에 주목하고 그 배경에 있는 천리교의 종교적 신념을 4 개의 시점에서 검토했다.

천리교는 「도움」이라는 구호 실천을 요구하는 교리를 가졌기 때문에 신앙 실천의 일환으로 사회 복지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자세 면에서 어느 시대에나 변함없이 적극적이었다. 또한 행정이 주도하는 위탁 양육에서도 두드러진 성과를 보인 것은, "타인의 젖먹이도 염려하고 키운다"라는 아이에 대한 뜨거운 종교적 심정이 양부모의 마음속에 항상 살아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위탁 양육이 가지는 과제 중 하나는 행정 및 종교의 상호 관계이다. 후생 노동성의 「새로운 사회적 양육 비전」이라는 문맥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요구된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어 일본의 가족 상황이 크게 변화하는 가운데 혈연이 없는 아이들을 양육하는 경험은, 혈연이 없는 사람들이 서로 돕고 살아가는 지혜를 얻는 기회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천리교에서는 이미 사회적 약자가 된 사람들을 「더부살이 씨(아오타 마사시, 2001)」라고 부르며 교회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독자적인 구제 활동을 실시한 경험이 있다. 가네코 주리(2004: p78)는 이와 같은 천리교 교회를 「확대 가족」 혹은 「교회 가족」이라고 재정의한다.

천리교의 위탁 양육 실천은 변화하는 일본 사회에서 혈연을 초월한 새로운 가족 제도를 만드는 힌트를 지시하는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

(번역책임자:양효진)